

土種 홍화씨
합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합양은 재배의 적지
● 합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완조곡 품종
● 대양은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興國農産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강원도장기지방장을 보며 활짝 웃는 학인들. 앞에 복사별 팻말로 구분했지만 하나된 마음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더라.



◇법고경연장에서 박수를 치며 응원격려하는 사미·사미니승. 티없이 해맑은 웃음에서 승가의 내일을 본다.

‘승가의 미래’ 짚어진 학인들

전통강원연합 10회 전국승가학인대회

450여 학인 동참...지혜 화합 참회의 장
참된 출가 서원...행사 통해 일체감 확인

10월 26~27일 법주사에서 열려

“저희 학인들이 법상의 지혜를 더욱 밝히게 하시고 진여의 귀감이 넘치게 하사 강원에서 배우고 익히는 삼장(三藏)의 금구 성언들을 한낱 글자에 치우치지 않고 스스로 근기에 맞게 수행하여 모든 대중으로 회향할 수 있는 논 부른 승가학인으로 일심케 하옵소서.”(제10회 전국승가학인대회 발원문)
불교의 희망은 아직까지 멀고 있었다. 푸르른 새벽이 굳은 꿈을 들고 솟아나듯 불교의 미래는 오히려 중증무진과 화합세계를 기약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전국전통강원연합(의장 덕암)이 10월 26~27일 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속리산 법주사에서 거행한 제10회 전국승가학인 대회는 또다시 불거진 조계종 분규의 와중에서 오히려 더욱 청정한 승가의 미래를 확인해 본 뜻깊은 자리였다.
전국 15곳의 사미·사미니 강원(운문사는 방학관계로 불함)에서 모인 450여명의 학인들은 이 자리에서 청년 학인의 푸른 승가상에서 우리나라의 힘을 바탕으로 수행자 본연의 자세를 정립하고, 각종 문화·학술 및 체육 행사를 통해 학인 상호간의 일체감 형성과 친선을 통한 화합을 과시했다.

입제 첫째 날인 26일 오후 1시부터 거행했다. 법주사 강원도의 상락 학인이 ‘육화(六和)의 정신을 이어받아 화합된 승단으로 이 시대의 어두운 중생들의 곁잡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발원문을 낭독해 종단의 화합을 기원하는 학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냈다. 이어 전강원 의장 덕암 학인의 개회사가 이어 법주사 주지 혜광스님의 환영사, 교육원장 일연스님의 인사(교육국장 견진스님 대독), 법주사 승가대 강주 해남스님의 축사 역시 학인들이 종단의 어려움을 속에서도 수행에 매진해 승가의 화합을 구현하고 대중의 사표가 되어 부처님의 구세인력(救世願力)의 실천자로서 불국토 건설의 사명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살법회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로 꾸며진 학인대회가 정제화합하고 참회하는 포살법회를 포함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었다. 불자들과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자괴감에 빠뜨린 종단의 분규를 학인들이 대신 참회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보살계의 가르침에 따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합처럼, 흉탄에 대립하지 않는 연꽃처럼 참된 출가의 길로 매진하겠다’는 서원을 발한 것이다.

학술·문화행사 1년동안 강원에서 배운 지혜와 수행력을 겨루는 학인대회는 차분한 학술행사로 부터 시작됐다.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의 ‘사회 복지 제도’에 대한 특강을 통해 미래 불교는 사회복지와 NGO(비

정부기구)를 통한 대승보살도의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문화행사는 포살법회를 비롯 법고경연, 역경대회, 서도대회, 꽃꽂이, 향불, 장기지방장 등으로 진행됐다.
법고경연(승공사 무승)은 각 강원에서 2인 1조로 5분간 법고를 치며 풍악과 소리를 겨루고, 역경대회(동학사 무승)는 각 강원에서 처문·사집·사교 1명씩으로 구성된 두어인 시간내에 경을 번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꽃꽂이 전시는 동학사 봉암사 청암사 삼선 포교원등 사미니 강원에서 각 3명이 출전, 주어진 주제로 꽃꽂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향불은 선시 엄봉 발원문 출가사 기도문 등에 나름의 ‘메’를 넣어 부르는 소리 경연이 되었다.
문화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법고경연과 장기지방장이었다. 법고경연 때에는 관객들도 구경꾼으로 참여해 흥겨운 가락에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으며, 장기지방장 시간에는 수준높은 연극과 노래지방장이 이어졌다. 특히 해인사의 연극 ‘스나이퍼’와 통도사의 ‘불보살의 대중공사’ 등은 깊은 주제 의식과 탄탄한 구성이 돋보였다.
연극 ‘스나이퍼’는 중생을 지배하고 있는 무명제국에 저항하는 강원해방대와 심방공수대, 극락장르대의 활약상을 통해 탐진치에 사로잡힌 현대문명의 비극을 희화화했으며, ‘불보살의 대중공사’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적석전 등을 출연시켜 한국불교의 현실을 풍자하면서 미래 불교의 희망은 강원 학인들에게 있음을 암시하는 수준높은 연극이었다.

체육대회 법주사 잔디구장에서 펼쳐진 체육행사는 줄다리기부터 사미 강원인의 축구(해인사 무승) 축구 릴레이 경기와 사미니 강원인의 구구 배구 발야구 탁구 등의 종목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미 학인들의 축구경기는 다이나믹한 함은 물론 정교한 패스 능력을 갖춰 소문대로 상당한 실력임을 보여 주었으며, 사미니 학인들은 발야구 등을 즐기며 모처럼 학창 시절의 발랄함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승가 학인대회의 종합무승은 통도사와 청암사가 차지했다. 그러나 강원학인들의 지혜와 재주를 겨루는 이 대회의 진정한 목적은 안으로 자신을 수련하면서 완전한 인격체로서 수행자 본연의 자세를 정립하고 불합중의 초석이 될 것을 서원하는 논 부른 학인들의 생동감 넘치는 대중공사였다. 행사를 주관한 전강원 의장 덕암(법주사강원) 학인은 “오늘 모인 학인들이 지금의 초발심의 자세로 수행과 포교에 매진한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한다”면서 “전통 강원의 유구한 힘이 불교 중추국으로서의 한국불교의 위상제고와 중생구제의 발원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글 김재경 기자·사진 고영배 기자



◇선서일여(釋曹一如), 서도경연대회에서 서도삼매에 빠진 학인들.



◇법고경연장에서 법고를 두드리며 법고송을 추는 학인. 신명난 팔불림이 무명속에 잠자는 불성을 일깨우는 듯 하다.



◇전통 강원의 최강팀인 해인사(상의 흰옷)팀과 범어사팀과의 축구경기. 해인사가 최종 무승했다.



◇한국불교의 희망은 전통 강원에 있다고 결론을 내린 통도사 강원연극 ‘불보살의 대중공사’.



◇고려시대 지방화원 불상형식을 연구하는데 중요자료가 되는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

마애불을 찾아서 용미리 석불입상

머리위에 돌갓 얹힌 토속석불
고려시대 지역적 불상 연구자료

거대한 천연 암벽에 우람하게 새겨져 있는 2구의 마애불상들은 머리위에 돌갓을 얹혀놓아 토속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고려시대 석불입상이다. 전체적으로 과량감이 느껴지는 불상 중 왼쪽의 둥근 갓을 쓴 원형불은 자연적인 미소가 깃든 네모진 얼굴과 삼도가 없는 원통형의 목, 당당한 어깨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손은 가슴앞에서 연화를 쥐고 있다. 양 어깨에 걸친 풍견의는 양쪽으로 단계적인 새물무늬를 간결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가운데는 V자 모양을 선각하고 있는데 아래 끝쪽은 의외로 부르드러우며 가슴에 보이는 띠 매듭은 장식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오른쪽의 네모난 갓을 쓴 방형불은 합장을 하고 있는 수인만 다를 뿐 세부적인 조각수법은 왼쪽의 원형불과 거의 같다. 이 불상들은 고려 선종과 원신공주와 왕자인 한산후의 탄생과 관계있는 설화가 있고 옆에 명문까지 새겨져 있어 고려시대 지방화원 불상양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례로 높이 평가된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소재하며 보물 제 93호.
글·사진=불자포교사진연합회 제공 (011-337-7312)

행운을 간직하는 달마도의 대가 매헌(梅軒) 율종우 선생 작품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99.9%)카드에.



한국 G & C는 수능시험을 대비하여 신비의 달마도 순금카드를 직접 공급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달마도는 불교의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험 및 전지파를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학인들이 (주)한국 지연사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에서 신비의 기를 담은 순금(99.9%)카드를 했다. 지난 소거 및 신동으로 화제였던 순금(99.9%)카드의 일인인 달마도 뒷면에 반사광을 새겨 비반사코팅함으로써 빛이 지나거나 구멍이 지면에 비치지 않게 했다.
달마도 순금카드의 개인소지용으로 사탕가, 수험생, 운전자, 종교인 등 선물용으로 최적의 상품이며 가격은 대형(5x7.5cm) 2000원과 소형(3x5cm) 1500원 등 크기는 두가지가 있고 대소셋트 구매시 35,000원을 특별보급가적인 30% 할인된 28,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순금카드의 순금판 상박신달마도 영쇠고리 1개, 1만원, 3개, 5개 또는 2만원에 판매한다.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할인은 물론 달, 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 부처, 명함 등 어떠한 문안이든 새길 수 있다. 또한 순금카드에 대한 율종우 선생님의 전신 또는 상반신을 순금(99.9%)판위에 새겨 고급형 표주박으로 최초로 한국 지연사에서 출시하였다.
고급 표주박자는 액자크기(20cm x 30cm), 순금판크기(11 x 15cm) 판매가격 1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순금카드를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특별가적인 20% 할인하여 120,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매헌 율종우선생님의 친필원본 작품도 한정판 매된다.
본 제품은 성실성명 및 최후를 다하여 제작하였으므로 더욱더 간직함에 달마의 힘이 된다.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3일내 우편배달 가능함(금의 착이 있음니다)

◎ 제조판매원 : 한국 지연씨 (24시간 공휴일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 02)922-4804-5
◎ 전국판매점명칭 모집 업체 연속으로 최정상급(보통사, 자문사대리점, 전문 상담, 운영, 마케팅) 고급순금, 특수수출, 종교단체 등 다수

강원 내전중심 의무교육기관...16곳 학인 1천여명

강원(승가대학)은 조계종의 기본교육기관으로서 모든 사미·사미니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기관이다. 현재 강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인은 해인사 승공사 등 사미 강원 11곳에 358명, 운문사 동호사 등 사미니 강원 5곳에 620명 등 약 1천여명에 이른다. 이는 중앙승가대(280명) 동국대(160명) 기초선원(150명)을 포함한 전체 기본교육기관 재학 학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불교의 전통적 수행방법에 입각해 체계적인 승가교육으로 자리 잡아 온 강원은 계·정·혜(戒定慧) 3학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도제(徒弟)양성에 입각한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전통을 이어 받아 내전을 중심으로 한 경학 연마와 수심 연마를 통해 합수행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치문반 사집반 사교반 대교반 등 4년 과정으로 구분되는 교과과정은 △1년차

에 <처문>(수상결)<사십이장경>등 교재를 통한 기초교리 및 승의, 자비관 확립 △2년차에 <서장>(도서)<신요>(절요) 등 사집과목을 통한 참선에 대한 이해 및 실험(수식관 등)수행 △3년차에 <동명경>(금강경)<원각경>(기신론) 등 대중경전을 통한 인격 구현 △4년차는 <화엄경>을 위주로 한 대승보살행의 함양과 승려로서의 대중교화 자질 배양을 중점 교육목표로 정하고 있다. 각 강원 별로 불교(문화)사, 외국어, 서예, 꽃꽂이, 컴퓨터 등 다양한 교양과목도 개설하고 있어 전인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